

 <b>국토교통부</b>	<b>보도참고자료</b>		
	<b>배포일시</b>	<b>2022. 3. 2.(수) / 총 2매</b>	
<b>담당 부서</b>	해외건설정책과	<b>담당자</b>	·과장 오성익, 사무관 이정식·차상헌, 주무관 이주원 ·☎ (044) 201-3517, 3520, 3522
<b>보도일시</b>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국토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2차 긴급상황반 개최**

### **- 제재 관련 전문가·진출 기업과 대응 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재 상황에서의 해외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 협회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개최(3.2, 오전)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회의(2.23) : 근로자(우크라이나 4명) 대피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근로자 안전에 이상 없음 확인

□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기업 리스트, 세부 내용의 파악 필요성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며, 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 제재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 제재 관련 기업의 **법률적 대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 경제 제재와 대응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정식 사무관(☎ 044-201-3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